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언어 교육 복지: 지향과 과제

민병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minbg@snu.ac.kr

1. 코로나 팬데믹과 교육 격차

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와 언어 교육 복지의 관계를 살피고 그 지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격차란 일반적으로 교육 결과의 격차, 구체적으로는 성적 등으로 표상되는 학업성취도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교육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보다는 사회계층적 측면에 주목하며, 평균적인 질보다는 집단 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교육 격차는 일종의 사회문제로서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통합에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해소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교육 결손과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크다. 원격 수업의 일상화로 인하여 학습 격차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진 점 등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에서도 '교육회복 종합방안'(교육부, '21. 7.)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책의 핵심은 '등교'를 확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교육의 여건을 회복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결손을 보완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육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제기한 교육 격차의 주요 이슈들은 교육 결과의 격차 외에도 원격 수업에 따른 돌봄의 문제, 이와 관련한 가정의 교육 환경으로서 사회경제적 자원 문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적·정서적 발달 문제, 미디어 기반의 교육 환경에서 교수학습의 방법과 교육적 소통의 문제 등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교육 격차 문제를 교육의 결과만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 및 환경과도 관련지어 성찰하게 되었고, 결국 그 해법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던 학생의 '등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간주되는 데서도 이러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학교 교육'이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문제는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이 교육의 공공성을 저절로 회복해 줄 것인가, 즉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넓다. 우리는 언어 교육¹⁾으로 범위를 좁혀 생각해 보기로 하자. 팬데믹 이전의 언어 교육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즉 교육 격차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1) 여기에서 '언어 교육'이란 주로 국어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다. 외국어 교육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다.

2. 교육 격차 문제에서 언어 교육의 위상

교육 격차와 언어 교육의 포함관계 또는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언어 교육을 교육 격차의 일부라고 보는 것인데 이 경우 교육 격차 문제는 언어 교육 격차로 환원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언어 교육이 교육 격차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 언어 교육을 교육 격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교육 격차와 마찬가지로 언어 교육 역시 교육 체제 측면에서 결과적 측면뿐만 아니라 투입과 과정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논의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중에서 비교적 간명한 관계의 설정은 이런 것이다.

교육 격차			
	투입	과정	산출
	사회구조적 배경	학교 체제 특성	교육 효과
	↓ ↑	↓ ↑	↓ ↑
언어 교육	언어 격차	언어 교육 격차	언어 격차 확대

위와 같은 설정은 교육 격차를 투입,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논의한 김병성(2017)을 참조하여 언어 교육과 관련지어 본 것이다. 주로 가정환경과 같은 사회구조적 배경에 의해 언어 격차가 발생하고,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교육 격차가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언어 격차가 확대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어 교육이 교육 격차와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교육 격차에 미치는 언어 교육의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언어 격차'는 언어 경험의 격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 밖 언어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다. 전통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자녀가 부모의 돌봄 부재나 문식 환경 차이로 인하여 받는 영향에 주목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러한 취약 계층 자녀의 경우를 포함하여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 가정의 자녀에게서 발생하는 언어 격차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결혼이주민가정, 이주민노동자가정, 탈북민가정 등 소위 다문화배경 가정 자녀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러한 언어 경험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언어 경험의 격차는 학교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언어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입문기 문자습득과 관련한 기초학력 문제일 것이다. 주로 취학 전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글 습득 여부가 학교 교육을 통하여 기초학력의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글 미습득으로 인한 읽기와 쓰기 활동의 제약은 국어 교과는 물론 타 교과 학습의 부진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글을 습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문식 활동 경험의 차이는 당연히 언어 격차와 교육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령기에 발생하는 언어 교육의 격차는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인적·물적 자원으로 이루어진 교육 환경의 영향을 주로 받겠지만, 대학 입시 제도와 사교육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하는 왜곡된 평가체제는 학벌과 사회적 지위에서 보상체계의 격차를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 격차를 발생시킨다. 수능시험 국어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는 대학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과 국어 교과 성취도이지만, 선다형 지필 시험의 제약과 9등급 상대평가 체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평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능 시험 체제는 언어 교육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환경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어 교육이 추구하는 교과 역량의 함양보다 읽기 능력, 그것도 선다형 평가에 최적화된 지문 읽기와 문제 풀기 전략을 기르는 데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이다. 언어 교육의 결과에 대한 왜곡된 평가 방식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결과적으로 결과, 과정, 환경 측면에서 모두 교육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과가 추구하는 역량을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의 여섯 가지로 상정하고 있다. 국어 교과에서 이러한 역량을 여하히 함양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과제로 남지만, 위와 같은 교과 역량이 보여주는 것은 국어 교과는 지식과 의미를 구성하는 도구적 역할 이상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국어 교과의 교육 내용은 이러한 교과 역량과 목표를 최소한의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반영하고자 하지만 사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이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언어 교육의 이론과 교육적 실천 간의 괴리 현상이 교육 격차 문제를 설명하는 요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3.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서의 언어 교육 복지

교육 격차 해소의 궁극적 지향점은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이재열, 2021)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자체만이 아니라 교육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서 언어 교육 복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지엽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생활이 교육의 과정과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해 볼 때, 언어 격차 또는 언어 교육의 격차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이고, 이것이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접근 방향과 과제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부각되는 쟁점 중 하나는 선별적 복지(또는 포용적 복지)이나 보편적 복지이냐 하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복지를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이삼형, 2020; 원진숙, 2020). 복지는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이해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언어 교육 복지 역시 국민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최소 수준 또는 기본 수준의 교육과 언어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육 격차 문제는 교육 체제 측면에서 투입, 과정, 산출의 국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언어 교육이 각 국면에서 언어 격차, 언어 교육 격차, 언어 격차 확대의 양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언어 교육 복지 방안도 교육 격차의 세 국면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투입 측면인 사회구조적 배경과 관련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의 문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정의 문식 환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사용자로서 부모의 역할인데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결국

아동에 대한 돌봄이나 양육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수업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첨예화되었다. 이와 더불어서 원격 수업을 위한 매체 환경 역시 복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 사회의 문식 환경으로는 도서관의 역할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공 도서관이 더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아동의 문식 경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도서관 또는 아동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이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 지원 시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의 언어 발달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보해야 한다.

언어 교육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어 교육에 끼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한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활발하게 했던 사회적 상호작용은 수업에서보다는 수업 밖에서 또래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언어 교육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에서 활발한 언어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보고 보여주는 언어활동 또는 문식성 실천이 수업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실 단위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 확보, 교실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는 허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 형성,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라는 인식과 교육적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 참여하는 언어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시설과 교실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의 활용 가능성 등 교수 매체 환경의 변화가 공간적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큰 틀에서 학교 시설 전체의 스마트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어 교과의 학습 내용이 타 교과의 학습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어휘를 비롯한 언어 자원과 국어 교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언어적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학생,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을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전반적인 언어 교육 복지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어 교육의 일상 회복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상이 될 것이라고들 한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원격 수업 체제를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비일상적인 낯선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상이 되고, 도리어 대면 수업을 더 낯설어하게 되었다. 수업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업의 일상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수업 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다.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간의 대인 의사소통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합 미디어로 매개된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언어 교육의 위상은 전통적인 매체인 음성과 문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미디어 문식성이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핵적인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으로 국어 교육을 도구교과로 규정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국어 교과의 도구적 역할에 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언어 교육 복지 문제는 전통적 의사소통 매

체인 음성, 문자로 이루어지는 문식성 외에도 복합매체로 이루어지는 복합양식 문식성 함양에 무게 중점을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코로나 이전의 학교교육에서도 언어 교육의 일상은 왜곡된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언어 교육의 일상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면 상황에서의 언어적 실천의 중요성에 좀 더 주목하게 되었을 뿐, '등교' 확대를 통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언어 교육 실천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에 따른 교육 격차의 해소와 이를 위한 언어 교육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습자 개개인이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요구되는 언어적 실천을 자유롭게 해 낼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 교육이 지향하는 바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